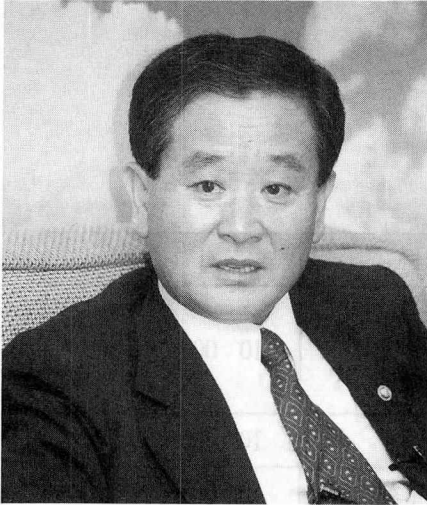


“정보화 앞당기는데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고, 정보화 경쟁에서 앞서느냐 뒤지느냐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쟁력과 국민 복지 향상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분야와 국무총리실 등에서 일해온 관계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획원과 총리실에서 정부부처 업무를 종합 조정하면서 정보통신부 주요 간부들과 낮이 익었고 또 지난 93년초에는 제가 경제기획원 차관 보직을 맡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NSII (National Strategy of Information Industry)’라고 불렀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민정부 출범후 정보화촉진기본법부터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2년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법안의 마지막 부처간 조정역할을 제가 94년 말경에 경제기획원 차관을 지내면서 맡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당시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었을 때 체신부 의견을 많이 고려했던 제가 여기에 온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는 국가적 당면문제 해결의 열쇠

저는 우리가 정보화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치유하려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임금이나 땅값 등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높이는 쪽이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더 실현가능성이 있고 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보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정보화의 성패를 짊어진 역사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21세기에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지금부터 4, 5년동안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보화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10년 이상이 늦었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나 대만보다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경에 마련된 정보화기본계획을 앞으로 실천적인 부문계획으로 만들어 그야말로 강력하게

최선을 다합시다”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주저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영향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만 결집되면 얼마든지 매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각 부문의 정보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야

정보화는 모든 정부부처와 국민들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함됩니다. 경제의 효율과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교육, 환경, 의료 등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보화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보화는 이처럼 모든 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구체적인 정보화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정보통신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해 나가면서, 관계기관의 정보화 역량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원군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정보화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정보화가 가속화·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분야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신수요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통신산업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인식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보통신수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으므로 그 사업을 맡기만 하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황금알은 ‘노른자가 없는 황금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낳아야 할 소위 황금알은 그 안에 노른자가 있어서 또 다시 거위를 재생산해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산업이 양적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술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집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창의와 의욕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꼭 기업규모가 커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고 정보통신산업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들이 잘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쟁 여건조성과 규제 완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커 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이와같은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는 없는지 항상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98년이면 우리의 통신시장이 대폭 개방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내경쟁을 통해 기술면에서 어떤 선진국의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와 신뢰로 뭉쳐 일류부처를

우리 정보통신부는 매우 많은 가족이 모여 있는 기관입니다. 4만명이 넘는 식구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1만2천명이나 되는 집배원들이 국민들의 발이 되어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가족들이 그야말로 따뜻한 우애와 신뢰로 뭉쳐서 모든 부처의 모범이 되는 모든 부처에 앞서가는 부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전파관리나 체신금융분야 등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의로써 일해 나가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가 하는것도 제가 이미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나서서 풀어야 할 일은 제가 서슴치 않고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통신부의 기구가 확대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식구들이 들어 왔습니다.

첫째로 단결이고 우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북돋워주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면 우리 정보통신부는 일등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의 과제가 중요한 만큼 우리 정보통신부는 반드시 일류 부처, 일등부서가 돼야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일등부서가 안되면 우리의 정보화가 어떻게 세계일류가 되겠습니까.

이런 각오로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배워가면서, 또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풀어드리면서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유지

다행히 전임 이석채 장관께서 매우 훌륭하신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예측가능하고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장관이 새로 왔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도 일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방안을 연구해서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조금도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능력과 덕이 모자라는 점이 있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은 저를 도와서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사명인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이만 간단히 취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96. 8. 9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강 봉 균